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제8화 출가(出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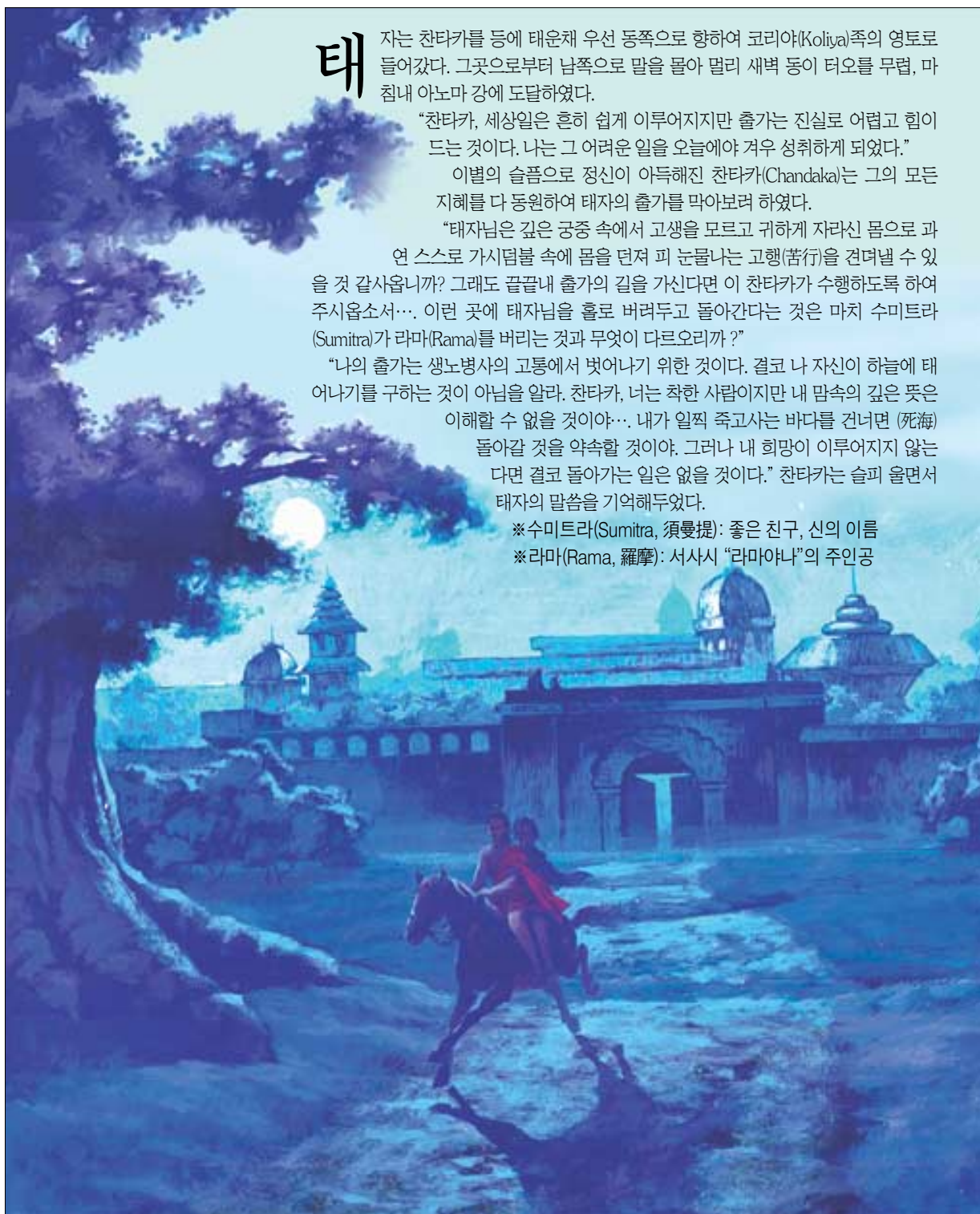
**시** 다르타 태자가 산책을 마치고 방안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밤늦게까지 태자를 유혹하여 오욕에 빠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던 기녀(妓女)들이 모두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태자가 비로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 모습들이 또한 가관이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여인들은 잠이 들어 있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녀들이 가지고 놀던 악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영락 장신구들은 마치 목의 사슬을 끄는 것 같고 치마저고리는 온몸을 얹어 묶은 듯 마치 형벌을 받는 사람의 물갈들

이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그토록 아름답고 단정했으며 엄숙한 모습으로 갖은 야양 다 떨며 야리따운 자태로 태자의 마음을 잡으려 했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웠다.  
“여자의 본 성품이 본시 이러했으니 어찌 친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으리오. 목욕하고 화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단장하여 남자의 마음속을 속여 미혹 속에 빠뜨리는 것 내 이제야 깨달았도다.”



**참** 으로 신비로운 밤이었다. 보통 때는 태자의 동태를 감시 하라는 부왕의 명령으로 수 명의 병사들이 태자의 뒤를 따라 다녔는데 이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태자는 찬타카(Chandaka)에게 칸타카(愛馬)를 끌고 오게하여 조용조용히 성문을 향하여 다가섰다. 그러나 성문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태자 일행의 움직임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시다르타 태자와 찬타

카 그리고 태자의 에마 칸타카, 그들 셋은 소리도 없이 성문을 빠져 나왔다. 태자는 찬타카를 말의 등에 태우고 짐꾼같이 달려 성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지금까지도 태자의 탈출이 발견 되지만 하면 솟도다나 라지는 병사들을 풀어 뒤를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운명을 칸타카에게 맡기고 멀리멀리 달아난 것이다.  
※불전에는 이 날밤 태자는 신들의 도움으로 성벽을 뛰어넘어 출가에 성공했다고 쓰여있다.



**태** 자는 찬타카를 등에 태운채 우선 동쪽으로 향하여 코리아(Kolija)족의 영토로 들어갔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말을 몰아 멀리 새벽 동이 터오를 무렵, 마침내 아노마 강에 도달하였다.  
“찬타카, 세상일은 흔히 쉽게 이루어지지만 출가는 진실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다.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오늘에야 겨우 성취하게 되었다.”  
이별의 슬픔으로 정신이 아득해진 찬타카(Chandaka)는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태자의 출가를 막아보려 하였다.  
“태자님은 깊은 궁중 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귀하게 자라신 몸으로 과연 스스로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져 피 눈물나는 고행(苦行)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까? 그래도 끝끝내 출가의 길을 가신다면 이 찬타카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곳에 태자님을 홀로 버려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수미트라(Sumitra)가 라마(Rama)를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리까?”  
“나의 출가는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나 자신이 하늘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찬타카, 너는 착한 사람이지만 내 맘속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내가 일찍 죽고사는 바다를 건너면(死海) 돌아갈 것을 약속할 것이야. 그러나 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찬타카는 슬피 울면서 태자의 말씀을 기억해두었다.

※수미트라(Sumitra, 須曼提): 좋은 친구, 신의 이름  
※라마(Rama, 羅摩): 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



**“자** ... 찬타카, 이제는 이별을 할 때가 되었도다. 내가 항상 머리에 쓰던 왕관은 부왕에게 전달하고, 내가 정각을 성취한 후 마땅히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러나 만약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깊은 산림 속에 없어질 것이로다.”  
“태자마마, 이 찬타카는 결코 혼자서 궁으로 돌아 갈 수 없나이다. 대왕마마 뿐만이 아니라 온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원망이 이 찬타카 한 몸에 떨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슬픔을 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차라리 태자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옵소서...”  
“찬타카, 너의 마음을 알기에 그토록 나의 생각을 전해 주지 않았는가... 넓은 물의 우거진 큰 나무엔 못 새들이 떼를 지어 저녁엔 모였다가 새벽에는 흩어지니 이 세간(世間)의 이별 또한 그러한 것이다. 떠도는 구름도 산꼭대기에서 일어나 허공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흩어지니 사람사는 이치 또한 그런 것이니라.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작별의 순간을 맞으라...”